

부모의 수용과 대학생 자녀의 피해자 정의민감성, 가해자 정의민감성 간의 관계: 권력가치와 자기초월가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Received: July 11, 2022
Revised: August 18, 2022
Accepted: August 24, 2022

최소영¹, 이은재², 이승연³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강사¹,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석사과정²,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³

교신저자: 이승연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0376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E-MAIL:
slee1@ewha.ac.kr

Relations between parental acceptance and
victim or perpetrator-justice sensitivity of university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power and self-transcendence values

Soyeong Choi¹, Eunjae Lee², Seung-yeon Lee³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Lecturer¹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s Student²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³

* 해당 논문은 2022년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대회에
발달 분과 포스터로 발표됨



© Copyright 2022.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BSTRACT

본 연구는 공정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불공정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도인 정의민감성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대학생의 피해자 정의민감성과 가해자 정의민감성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부모 수용의 효과를 각각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권력가치와 자기초월가치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대학생 401명의 설문자료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버지의 수용은 피해자 정의민감성과 가해자 정의민감성을 모두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아버지의 수용은 권력가치를 부적으로, 권력가치는 다시 피해자 정의민감성을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며, 권력가치의 부분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한편, 어머니의 수용은 자기초월가치를 정적으로, 자기초월가치는 다시 가해자 정의민감성을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며, 자기초월가치의 완전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 및 가해자 정의민감성의 발달에서 부모 양육과 가치의 역할, 그리고 개입에의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수용적 양육이 정의민감성의 발달에 차별적 역할을 가지며,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특정 가치가 서로 다른 정의민감성의 발달에 기여함을 밝혔다는 의의를 지닌다.

주요어 : 부모 수용, 피해자 정의민감성, 가해자 정의민감성, 권력가치, 자기초월가치

어떤 상황이나 행동이 도덕적인지를 판단할 때, 우리는 공정성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절차와 결과가 공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와 같은 불편한 정서를 느끼는데(Reich & Hershcovis, 2015), 이는 불공정한 상황이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원리를 위반하기 때문이다(Cropanzano et al., 2005). 그러나 불공정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도는 개인마다 다르다. 정의민감성(justice-sensitivity)은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에서의 개인차를 설명하는 개념이다(Schmitt et al., 1995). 정의민감성이 높은 개인은 불공정한 상황을 더 자주 지각하고 반추하고 부정적 정서 반응을 더 강하게 보인다. 최근 여러 사회 현상들이 공정성 이슈와 관련되어 해석되고 있으며(예, 박원익, 조운호, 2019), MZ세대로 대표되는 20대는 다른 어느 세대보다 공정성에 민감하여 자신이나 타인이 접하는 불공정한 상황에 크게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대의 정의민감성에 주목하였다.

한편,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자신이 어떤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Mikula, 1994). Schmitt 등(2005)은 피해자(victim), 가해자(perpetrator), 수혜자(beneficiary), 목격자(observer)의 관점에서 정의민감성을 분류하였다. 피해자 정의민감성은 자신이 불공정한 상황의 피해자가 되는 것에 대한 민감성을, 가해자 정의민감성은 부당하게 피해자를 대하여 자신이 이득을 취하는 것에 대한 민감성을, 수혜자 정의민감성은 불공정한 상황에서 의도치 않게 수혜를 입는 상황에 대한 민감성을, 목격자 정의민감성은 불공정한 상황을 목격하는 것에 대한 민감성을 의미한다(Baumert et al., 2014). 각 유형의 정의민감성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 지에는 차이가

있는데, 피해자 정의민감성은 자기-위주적인 관점을 반영하며 규칙 위반(Fetchenhauer & Huang, 2004), 공격적 행동(최소영 등, 2019), 비협조적 행동(Gollwitzer & Rothmund, 2009)을 예측하는 반면, 가해자 정의민감성은 이타적인 관점을 반영하며 공격적 행동을 부적으로(Bondü & Richter, 2016), 도덕적 정서와 친사회적 행동을 정적으로(Bondü & Elsner, 2015) 예측한다. 즉, 자신이 손해를 입는 상황에 민감하고 이에 분노하는 사람은 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공격적으로 행동하게 되지만, 자신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공격적 행동을 덜하고 친사회적 행동을 더 하게 된다.

이러한 정의민감성의 개인차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 정의민감성의 개인차에 유전적 영향이 있기는 하지만, 성장 환경의 영향력도 분명히 작용한다(Wang et al., 2022). Bondü 등(2016)은 성장하면서 겪은 공정하거나 불공정한 경험(예, 또래나 학교, 부모와의 갈등)이 공정함에 반응하는 개인의 정의민감성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Bondü 등(2016)은 이러한 가설을 경험적 연구를 통해 확인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정의민감성의 많은 연구는 정의민감성의 결과에 집중되어 있다(예, Bondü & Elsner, 2015; Bondü & Richter, 2016; Gollwitzer et al., 2005). 따라서 본 연구는 정의민감성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볼 필요성에 주목하였고,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에 초점을 맞추었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영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자녀의 성격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이 수없이 보고되어 온 만큼(예, Khaleque & Rohner, 2012; Baumrind, 2005), 정의민감성에도 중요한 선행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의

민감성의 직접적인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매우 드물지만, 세상이 공정하고 정당한 곳이라고 믿는 정도를 의미하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신념(belief in a just world)이 부모의 부정적 양육방식에 의해 약화된다는 연구나(Hofer & Spengler, 2020), 가정에서의 불공정한 경험이 사회의 불공정성을 높게 인식하게 한다는 연구(박소현 등, 2020)를 통해 부모와의 경험이 공정성의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Bondü와 Inerle(2020)의 최근 연구에서 피해자 정의민감성은 부모의 과보호와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이런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정의민감성의 발달과 관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Rohner 등(2005)에 따르면, 부모에게서 수용받거나 거절당한 경험은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유의하게 설명한다. 선행 연구에서 부모의 수용과 지지는 자녀의 높은 자기 수용(송지은, 임정하, 2015), 높은 자존감(Martínez & García, 2007; DeHart et al., 2006), 사회정서적 적응(Li & Meier, 2017)과 연관이 있었다. 반면 부모의 강압적, 통제적, 권위주의적(authoritarian)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적대적 귀인편향(Yaros et al., 2016), 공격성(김지현, 박경자, 2006; Carrasco et al., 2009), 부적응 문제(Hong & Cui, 2020)를 예측하였다. 부모가 자녀를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매우 중요하며, 이에 본 연구는 정의민감성의 발달을 설명하기 위해 보다 긍정적 측면인 부모의 수용적 양육태도에 초점을 맞추었다.

한편, 부모의 수용은 자녀가 중요시하는 기본 가치(basic value)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가치는 부모의 수용과 정의민감성의 관계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Schwartz(1992)에 따르면,

가치는 개인의 삶을 안내하는 기준으로서 개인의 태도와 행동을 이끄는 동기의 근원으로, 다양한 문화권에서 발견되는 기본 가치들은 네 가지 상위가치, 즉, 자기고양(self-enhancement), 자기초월(self-transcendence), 변화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change), 보수(conservation) 가치로 분류될 수 있다.

이 중에서 자기고양가치는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는 것과 관련된 가치들로 구성되며 성취(achievement)와 권력(power)의 가치가 이에 해당된다. 성취가치는 유능성을 발휘하여 개인적인 성과를 내는 것을 중요시하는 것이고, 권력가치는 타인이나 자원을 통제하고자 체계 내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성취가치와 권력가치는 도덕적인 측면에서 상이한 양상을 보이는데, 권력가치가 죄책감이나 인지적, 정서적 공감과 같은 도덕적 정서를 부정적으로 예측하는 반면, 성취가치는 이러한 도덕적 정서에 대한 예측력이 없었다(Silfver et al., 2008). 또한 성취가치는 대인 간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를 부정적으로 예측하지만 반대로 권력가치는 이를 정적으로 예측하며(Seddig & Davidov, 2018) 공격적 행동을 일관되게 정적으로 예측해 왔다(Knafo et al., 2008). 따라서 성취가치와 권력가치의 서로 다른 관계양상에도 불구하고 자기고양가치라는 상위 범주로 묶어 둘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도덕성과 관련된 변인들과 더 명확한 관련성을 지닌 권력가치만을 선택하여 살펴보았다.

한편, 자기초월가치는 개인의 이득을 넘어서 사회적인 초점을 가지며 보편주의(universalism), 박애(benevolence)의 가치가 여기에 해당된다. 보편주의는 모든 사람의 복지와 자연을 돌보고 보호하

며 공정하게 대하는 것과 관련되며, 박애는 가까운 사람들을 돌보고 용서하고 충실하게 대하는 것과 관련된다. 자기초월가치는 전통적으로 도덕성의 기준으로 알려진 공정성과 돌봄을 반영하는 도덕적 가치로(Graham et al., 2011), 자기초월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비도덕적 행동의 불승인(Pulfrey & Butera, 2016), 친사회적이고 도덕적인 행동(Caprara & Steca, 2007)을 예측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편주의와 박애를 모두 포함하여 자기초월가치를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가치를 내면화하는 것에 있어 부모의 양육태도와 방식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Grusec & Goodnow, 1994; Martínez & García, 2007). Martínez와 García(2007)에 따르면 권위있거나(authoritative) 허용적인 부모의 자녀가 권위주의적(authoritarian)이거나 방임하는 부모의 자녀보다 자기초월가치를 더 우선시하였다. 권위있거나, 허용적인 양육방식은 자녀의 통제 정도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둘 다 수용적 양육방식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또한 Georgiou 등(2018)의 연구에 따르면, 통제 정도에서 차이는 없지만 수용 정도에서 반대인 권위있는 양육과 권위주의적 양육은 자신의 목적과 높은 지위를 위해 타인과 경쟁하고 자기주장적 태도를 갖는 정도인 수직-개인적(vertical individualism) 가치를 각각 반대 방향으로 예측하였다. 즉, 권위있는 양육은 자녀의 수직-개인적 가치 추구를 약화시키는 반면, 권위주의적인 양육은 자녀의 수직-개인적 가치 추구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수용성이 자녀의 권력 가치를 낮출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한편, Williams와 Ciarrochi(2020)는 청소년 대상의 한 종단연구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자녀의 가치 내면화에 주는 차별적인 영향을

밝혀냈다. 초기 청소년기에 아버지의 권위있는 양육방식은 후기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외적 가치(경제적 성취, 권력, 의무)를 추구하는 것을 부적절로 예측하는 반면, 내적 가치(보편주의, 공동체, 박애주의, 자기 수용, 건강)의 추구는 예측하지 못하였다. 반면, 어머니의 권위있는 양육방식은 자녀의 외적 및 내적 가치를 모두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부모의 수용적 양육방식과 자녀의 권력가치, 자기초월가치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특히 이 관계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방식을 분리하여 서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어서 가치는 정의민감성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직까지 가치와 정의민감성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부재하지만, 선행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둘 간의 관계는 지지될 수 있다. 먼저 권력가치를 중요하게 추구하는 개인은 남들보다 더 많은 자원을 갖고자 할 수 있다. 자원 통제 이론(Resource Control Theory; Hawley, 1999)에 따르면, 개인은 자원(물질, 사회적 자원, 정보 등)을 더 많이 가지고자 반사회적 또는 친사회적 전략을 사용하여 사회적 지배를 확립하고자 한다. 이에 따르면, 사회적 지배와 권력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타인에 의해 자신이 손해를 입는 상황에 더 민감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 민감성이 강화될 것이다. 반면, 타인의 통제와 지배에 주된 관심이 있는 사람은 타인에게 불공정하더라도 자신이 더 많은 자원을 갖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에 대한 민감성, 즉, 가해자 민감성이 약화될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지되는데, 자기고양가치가 강한 사람은 도덕적으로 이탈되어 있고(Paciello et al., 2016), 돈, 권력 등을 갖고자

타인을 도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키아벨리즘이 두드러진다(Kajonius et al., 2015). 도덕적 이탈이나 마키아벨리즘은 다시 피해자 정의민감성과는 정적으로, 가해자 정의민감성과는 부적으로 관련된다(Maltese & Baumert, 2019; Schmitt et al., 2005). 권력가치는 도덕적인 정서(죄책감, 공감)와 부적인 관련을 가지며(Silfver et al., 2008) 이런 도덕적 특성은 다시 가해자 정의민감성과 정적인 상관을 보인다(Schmitt et al., 2005). 또한 사회적 지배를 추구하는 정도(social dominance orientation)는 피해자 정의민감성과 정적 상관, 가해자 정의민감성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Bondü et al., 2021). 따라서 권력가치는 피해자 정의민감성과 정적으로, 가해자 정의민감성과 부적으로 관련될 수 있다.

반대로 타인 지향적 가치인 박애와 보편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불공정한 상황의 가해자가 되는 것을 꺼려할 수 있으며, 오히려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하고자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 정의민감성을 부적으로, 가해자 정의민감성을 정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기초월가치(박애, 보편주의)는 친사회적 행동과 정적으로 관련되는(Benish-Weisman et al., 2019) 이타적 동기이며, 가해자 정의민감성 또한 친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 이타적 성격의 변인(Bondü & Elsner, 2015)이라는 점에서 둘 간의 관계가 시사된다. 이와 관련하여, Lönnqvist 등(2011)의 최후통첩 실험(ultimatum bargaining)에서 자기고양가치가 자기초월가치에 비해 높은 사람은 상대방보다 더 많이 가지고자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선택을 하고, 자기초월가치가 자기고양가치보다 높은 사람은 남이 더 많이 받도록 수용하고 양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간접적인 근거들에 기반하여 자기초월가치

는 피해자 정의민감성을 부적으로, 가해자 정의민감성을 정적으로 예측할 것으로 가정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1. 부와 모의 수용적 태도는 가해자 정의민감성과 피해자 정의민감성을 예측하는가?

연구 문제 2. 권력가치와 자기초월가치(박애와 보편주의)는 부와 모의 수용적 태도와 가해자 정의민감성, 피해자 정의민감성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온라인 리서치 회사에 의뢰하여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시 연구의 목적과 소요 시간, 예상되는 위험 등을 설명문으로 고지하였고, 이에 동의하는 응답자만 설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443명의 자료 중 불성실한 응답과 극단치를 제외하고 총 401명(연령 평균 22.25세, $SD=2.69$, 남 194명, 여 207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3년제 대학생은 46명(11.5%), 4년제 대학생은 355명(88.5%)이었으며, 주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는 30.9%가 중하위, 46.6%가 중위, 21.2%가 중상위로 응답하여 평균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구도구

부모 수용

부모의 수용 정도를 측정하고자 Brock 등(1998)이 개발한 Perceived Acceptance Scale(PAS)를 송지은(2015)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부 수용, 모 수용, 가족 수용 친구 수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총 44문항), 본 연구에서는 부/모 수용 각 10문항씩만을 사용하였다. 부모의 수용적 태도(예: 아버지 앞에서 나는 내 본모습대로 행동하는 것이 편하다. 어머니는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하든지 항상 나를 사랑하신다)를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5: 매우 동의한다) 상에 평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 지각된 부모의 수용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송지은(2015)의 청소년 연구에서 부와 모 수용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6, .86, 본 연구에서는 각각 .87, .86이었다.

정의 민감성

Schmitt 등(2005)의 성인용 정의민감성 척도를 Bondü와 Elsner(2015)가 단축본으로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총 15문항). 최소영 등(2019)이 번안한 피해자 정의민감성 5문항과, 유가람(2019)이 번안한 가해자 정의민감성 5문항을 사용하였다. 피해자 정의민감성(예: 내가 가져야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받으면 기분이 나쁘다), 가해자 정의민감성(예: 나는 다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내가 받게 되었을 때 신경이 쓰인다)을 6점 리커트 척도(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6: 매우 동의한다) 상에 평정한다. 피해자 정의민감성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이 불공정한 상황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함을 의미한다. 반면, 가해자 정의민감성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불공정하게 이익을 취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Bondü와 Elsner(2015)의 연구에서 피해자 및 가해자 정의민감성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각각 .78, .88, 본 연구에서는 .85, .82로 나타났다.

가치

Schwartz(2017)가 개발한 Portrait Values Questionnaire-Revised(PVQ-RR) 척도를 박용한 등(2019)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가치 척도(K-PVQ-RR)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가치 척도는 네 개의 상위가치와 19개의 하위가치를 측정하는 57개 문항으로 되어있다. 이중 본 연구에서는 자기 고양가치 중 특히 도덕성 문제와 명확한 관계를 보였던 권력가치(지배, 자원) 6문항만을 사용하였으며, 자기초월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보편주의, 박애에 해당하는 15문항을 모두 사용하였다. 6점 리커트 척도(1점: 나와 전혀 비슷하지 않다, 6점: 나와 매우 비슷하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가치를 중요하게 여김을 의미한다. 박용한 등(2019)의 대학생 연구에서 권력가치의 내적합치도는 지배 .72, 자원 .76, 자기초월가치에 해당하는 보편주의(자연, 관심, 관용) .59~.85, 박애(돌봄, 신뢰)는 .73~.77이었다. 본 연구에서 권력가치, 자기초월가치(박애), 자기초월가치(보편주의)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각각 .73, .83, .84이었다.

자료분석

SPSS 25.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분석 및 측정도구의 신뢰도, 변인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M-plus 8.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다. Anderson과 Gerbing(1988)의 제안에 따라 측정모형과 구조모형 분석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모형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각 변인들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문항묶음(item-parcelling) 하여 사용하였다. 변인이 의미적인 하위구인을 가지는 자기초월가치의 문항들은 이론에 근거하여 보편주의, 박애주의 가치의 하위 구인이 각각 하나의 문항묶음이 되도록 구성하였고, 나머지 변인들의 문항은 요인 알고리즘(factorial algorithm) 방식으로 문항묶음을 하여 측정변수를 형성하였다(이지현, 김수영, 2016). 매개효과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검증을 실시하였다.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기술통계 분석 결과(표 1), 본 연구 변인들의 왜도, 첨도의 절대값은 모두 1 미만으로, 왜도 절대값이 3 이상, 첨도 절대값이 10 이상일 때 정규성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Kline(2015)의 기준에 의하면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인의 평균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기초월가치($t=-3.17, p<.01, d=-.32$), 피해자 정의민감성($t=-2.26, p<.05, d=-.23$) 및 가해자 정의민감성($t=-2.37, p<.05, d=-.24$)에서 여자의 평균 점수가 남자의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수용에서는 유의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 과

표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N=401)

변인	1	2	3	4	5	6	7	8
1. 모수용	1							
2. 부수용	.58***	1						
3. 권력가치	-.10*	-.20***	1					
4. 자기초월가치	.17***	.08	.24***	1				
5. 자기초월가치-보편	.12*	.07	.18***	.93***	1			
6. 자기초월가치-박애	.20***	.08	.27***	.85***	.61***	1		
7. 피해자 정의민감성	-.07	-.21***	.28***	.03	.01	.05	1	
8. 가해자 정의민감성	.13**	-.05	.07	.42***	.37***	.38***	.19***	1
평균	3.73	3.42	3.91	4.44	4.35	4.56	3.62	4.07
표준편차	0.70	0.78	0.73	0.64	0.70	0.72	1.02	0.86
최소값	1.60~	1.20~	1.00~	2.47~	2.11~	3.00~	1.00~	1.00~
최대값	5.00	5.00	5.67	6.00	6.00	6.00	6.00	6.00
왜도	-0.14	-0.23	-0.35	0.01	-0.08	-0.01	-0.49	-0.11
첨도	-0.42	-0.39	0.68	-0.32	-0.01	-0.76	0.16	0.49

* $p<.05$. ** $p<.01$. *** $p<.001$.

상관분석 결과(표 1), 모 수용($r=-.10, p<.05$)과 부 수용($r=-.20, p<.01$)은 모두 권력가치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한편, 모 수용은 자기초월가치-보편($r=.12, p<.05$), 자기초월가치-박애($r=.20, p<.01$)와 모두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부 수용은 자기초월가치와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피해자 정의민감성은 모 수용과는 상관이 없었으나 부 수용과는 부적 상관($r=-.21, p<.01$)이 나타났다. 반면, 가해자 정의민감성은 모 수용과 정적 상관($r=.13, p<.01$)이 나타났고, 부 수용과는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가치 변인들과 정의민감성의 관계를 살펴보면, 피해자 정의민감성은 권력가치와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r=.28, p<.01$), 자기초월가치-보편, 자기초월가치-박애와는 모두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가해자 정의민감성은 권

력가치와는 상관이 없었으나, 자기초월가치-보편($r=.37, p<.01$), 자기초월가치-박애($r=.38, p<.01$)와 모두 정적 상관을 보였다.

구조방정식 분석

먼저 측정모형을 분석하였다. 측정모형의 모형적합도를 살펴보면 $\chi^2(75)$ 값은 207.479로 유의했지만($p<.001$), 근사적합도 지수는 RMSEA .066(95% CI=.056~.077), CFI는 .956, SRMR은 .035로 모두 적절한 수준이었다. 지표 변수들의 표준화된 요인부하값은 .72-.91 수준으로 모두 적절하였다. 이어 연구의 가설에 맞게 구조모형을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모형은 측정모형과 통계적 동치모형으로 적합도와 자유도가 동일하게 나타났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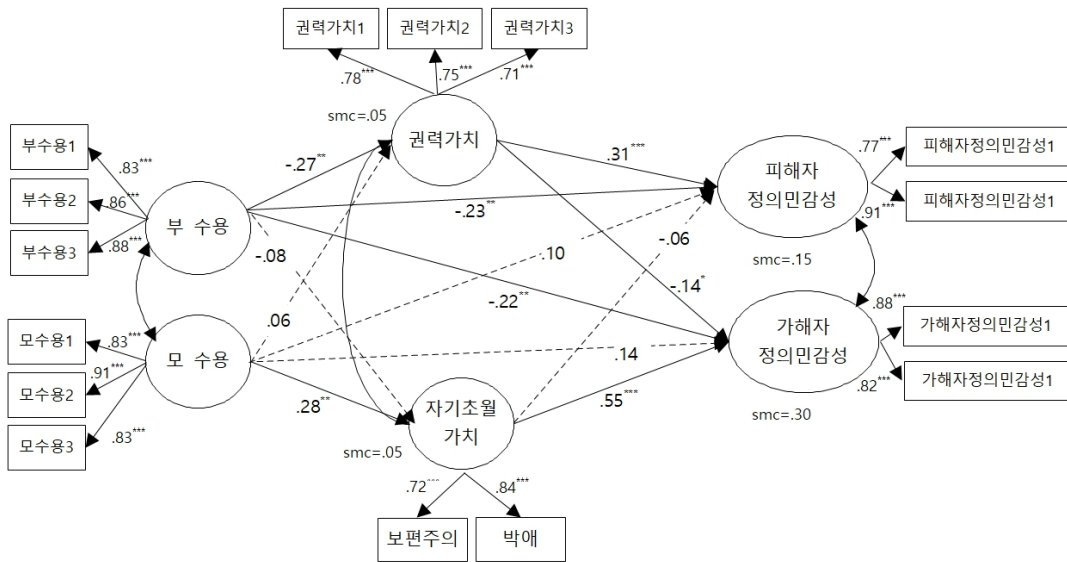


그림 1. 구조방정식 모형

* $p<.05$. ** $p<.01$. *** $p<.001$.

주. 그림에 제시된 계수는 표준화된 수치임.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의미함.

그림에 표시되지 않은 상관 계수는 다음과 같음. 부 수용과 모 수용 $r=.66, p<.001$; 권력가치와 자기초월가치 $r=.37, p<.001$; 피해자 정의민감성과 가해자 정의민감성 $r=.27, p<.001$.

표 2.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N=401)

경로	비표준화	표준오차	표준화
부 수용 → 권력가치	-.223	.082	-.265**
부 수용 → 자기초월가치	-.052	.084	-.082
모 수용 → 권력가치	.055	.083	.055
모 수용 → 자기초월가치	.209	.082	.279**
권력가치 → 피해자 정의민감성	.383	.068	.310***
권력가치 → 가해자 정의민감성	-.168	.066	-.144*
자기초월가치 → 피해자 정의민감성	-.096	.067	-.058
자기초월가치 → 가해자 정의민감성	.859	.062	.554***
부 수용 → 피해자 정의민감성	-.240	.078	-.230**
부 수용 → 가해자 정의민감성	-.221	.077	-.224**
모 수용 → 피해자 정의민감성	.118	.081	.096
모 수용 → 가해자 정의민감성	.164	.077	.141

* $p < .05$. ** $p < .01$. *** $p < .001$.

며, 따라서 측정모형과 동일하게 적절한 수준의 모형적합도를 보고하였다. 구조모형의 결과를 그림 1로 표시하였다. 각 경로의 유의도를 확인해본 결과(표 2), 부의 수용에서 피해자 정의민감성으로 가는 직접 경로($= -.23, p < .01$), 가해자 정의민감성으로 가는 직접 경로($= -.22, p < .01$)가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한편, 부의 수용은 권력가치를 부적으로 예측하였지만($= -.27, p < .01$) 자기초월가치는 예측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08, ns$). 또한, 권력가치는 피해자 정의민감성을 정적으로($= .31, p < .001$), 가해자 정의민감성은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14, p < .05$). 반면에, 모의 수용에서 피해자 정의민감성으로 가는 직접 경로($= .10, ns$)와 가해자 정의민감성으로 가는 직접 경로($= .14, ns$)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모의 수용은 권력가치를 예측하지 않았으며($= .06, ns$), 자기초월가치만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28, p < .01$). 자기초월

가치는 피해자 정의민감성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으나($= -.06, ns$), 가해자 정의민감성은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55, p < .001$). 종속변인인 피해자 정의민감성에서 예측변인들의 총 설명력은 14.6%, 가해자 정의민감성의 예측변인들의 총 설명력은 30.2%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표본 수 10000개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검증을 실시하였고(표 3), 95%의 신뢰구간의 상한값과 하한값이 0을 포함하지 않는지를 확인하였다(Preacher & Hayes, 2004). 그 결과 부 수용이 피해자 민감성을 예측하는 관계에서 권력가치의 단순 매개효과가 유의하였고($= -.09, 95\% \text{ CI } [-.16, -.01]$), 모 수용이 가해자 민감성을 예측하는 관계에서 자기초월가치의 단순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18, 95\% \text{ CI } [.05, .31]$).

표 3. 구조모형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N=401)

경로	비표준화	표준오차	표준화
부 수용 → 권력가치 → 피해자 정의민감성	-.086	.034	-.082**
부 수용 → 권력가치 → 가해자 정의민감성	.038	.022	.038
모 수용 → 자기초월가치 → 피해자 정의민감성	-.020	.020	-.016
모 수용 → 자기초월가치 → 가해자 정의민감성	.179	.049	.154**

* $p < .05$. ** $p < .01$. *** $p < .001$.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20대 대학생들의 정의민감성에 주목하고 발달적 예측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수용적 양육이 피해자 정의민감성, 가해자 정의민감성을 예측하는 관계와 기본가치 중 권력가치, 자기초월가치가 이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때, 부모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가치가 자녀에게 주는 영향에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부와 모의 수용을 분리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아버지의 수용은 직접적으로 피해자 정의민감성과 가해자 정의민감성을 예측하였으나, 어머니의 수용은 두 변인 모두 예측하지 못하였다. 이때 부의 수용은 서로 상반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 정의민감성과 가해자 정의민감성 모두를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발달심리학 연구들은 아버지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자녀의 사회적 적응을 돕는다고 보고해왔으며(Dubeau et al., 2013),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어머니의 양육 참여 효과를 통제된 후에도 성인기 자녀의 사회적 적응과 관련이 있었다(Flouri & Buchanan, 2002). 또한 아버지의 애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은 자녀의 걱정 또는 불안과 부적 관계를 보이는데(Ringeisen & Raufelder, 2015), 불안이나 사회공포는 피해자

정의민감성, 가해자 정의민감성 모두와 정적 상관을 지니는 것으로 최근 밝혀진 바 있다(Bondü & Inerle, 2020). 자녀의 불안을 낮추는 지지적 양육의 효과는 어머니의 경우에 비해 특히 아버지의 경우에 더 크게 나타나기도 하는데(예, Gomez & McLaren, 2006; Ringeisen & Raufelder, 2015), 이러한 결과들은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수용과 정의민감성과의 직접 관계가 어머니 수용의 경우와 달리 분명하게 나타난 것을 간접적으로 지지해줄 수 있다.

한편, Bögels과 Perotti(2011)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아버지는 외적인 보호(예: 외적 세상에 대항), 어머니는 내적인 보호(예: 위안이나 음식 제공 등)를 담당해왔기 때문에, 모호한 사회적 상황에서 자녀들은 외부 세계의 위험성을 파악하기 위해 아버지를 더 많이 참조하게 된다. 위험한 환경에서 부모는 훨씬 더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보이기 쉬운데(Kotchick & Forehand, 2002), 이러한 아버지의 행동을 통해 자녀는 외부 세계와 타인들을 위협적이고 적대적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자신이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한 민감성과 불안을 발달시키고, 동시에 타인에게 해를 입혀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발달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부모가 수용적이고 지지적인 경우 자녀는 세상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공정하며 따라서 예측가

능하고 안전하다는 믿음을 발달시키며(Quan et al., 2022; Umemura & Šerek, 2016), 결과적으로 내가 부당하게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나 내가 잘못하여 타인에게 해를 입힐 가능성 모두에 대해 덜 신경을 쓰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설명했듯이 아버지의 양육은 사회적으로 모호한 상황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며, 이는 부의 수용이 자녀의 피해자 정의민감성, 가해자 정의민감성 모두를 부적으로 예측한 본 연구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해자 정의민감성이 친사회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이타적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보고되어 온 만큼(예, Bondü & Elsnér, 2015), 아버지의 수용이라는 긍정적 양육방식의 효과로 직접적으로 가해자 정의민감성이 감소된다는 것은 바로 납득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아버지의 수용적 양육이 권력가치를 약화시켜서 가해자 정의민감성 증가에 기여하는 간접효과가 이론적으로는 더 적절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효과는 본 연구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본 연구 표본에서만 나타나는 것인지를 재확인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 간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숨겨진 변인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아버지의 수용적 양육이 권력가치를 낮추면서 피해자 정의민감성을 낮추는 간접효과는 유의하였다. 아버지가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방식으로 자녀들을 훈육할 때, 자녀들은 사회가 힘과 권력의 원리에 따라 흘러간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그런 힘과 권력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강압적인 상호작용이 빈번한 폭력적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더 많은 공격성과 괴롭힘 가해행동을 보이며(송경희 등, 2009; Stormshak et al., 2000), 이러한 공격적 행동은 흔히 집단 내 사회적 우위를 차지하려는 동

기에 기반한다(Vaillancourt & Hymel, 2006). 반대로 수용적이고 지지적인 아버지의 양육방식은 자녀로 하여금 힘의 우위를 중시하는 권력가치를 덜 추구하게 할 수 있다. 권력가치는 피해자 정의민감성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는데, 이는 사회적 지배를 추구하고자 하는 성향과 피해자 정의민감성이 정적 상관, 가해자 정의민감성과는 부적 상관이 나타났던 Bondü 등(2021)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인간의 기본가치는 개인이 원하는 목표와 행동을 이끌어 내며(Schwartz, 2007), 권력가치가 강한 경우 타인에 대한 통제와 지배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목표를 세우게 된다. 이때 자신이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은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고 좌절과 분노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권력가치가 강할수록 피해를 입지 않고자 동기화될 것이며 피해자 정의민감성이 더 강화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권력가치를 추구하여 사회적 우위에 서고자 하는 목표를 세울 경우 자신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에도 둔감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권력가치는 피해자 정의민감성을 정적으로, 가해자 정의민감성을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한편, 어머니의 수용적 양육은 자기초월가치의 증가를 통해서만 가해자 정의민감성의 증가를 설명하였다. 즉, 자기초월가치의 완전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부모가 권위있는 양육이나 허용적 양육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수용 수준이 낮은 권위주의적이거나 방임적 양육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자녀가 자기초월가치를 더 중시한다는 연구결과(Martínez & García, 2007)는 이를 뒷받침한다. 흔히 부모의 애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을 경험한 아이들은 높은 수준의 정서적 공감을 보이고, 도덕적 가치의 내재화를 통해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한다(Soenens et al., 2007; Patrick & Gibbs, 2016). 그러나 본

연구에서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의 수용적 양육만이 자기초월가치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는데, 돌봄 행동이 아버지보다는 주로 어머니에게서 나타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Bandura, 1997). 정리하면, 어머니의 수용적 양육을 통해 타인에 대한 공감과 배려, 이타적 행동을 중시하는 자기초월가치를 내재화한 경우 자신의 행동이 의도치 않게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것을 걱정하는 가해자 정의민감성을 발달시키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수용적 양육은 대학생 자녀의 권력가치만을 부적으로 예측하고, 어머니의 수용적 양육은 자기초월가치만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는데, 이와 유사한 결과가 몇몇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다. Williams와 Ciarrochi(2020)의 연구에서 아버지의 권위있는 양육이 후기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경제적 성취나 권력 등 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부적으로 예측했지만, 보편주의나 박애, 공동체 의식 등 내적 가치는 예측하지 못하였다. Day와 Padilla-Walker(2009)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자녀의 긍정적 유대는 자녀의 부정적 특성(외현화, 내재화 문제)을 낮추었으나 긍정적 특성(희망, 친사회적 행동)을 예측하지 못하였다. 반면, 보편주의나 박애 등 내적 가치(Williams & Ciarrochi, 2020)와 긍정적 특성을 길러주는 것(Day & Padilla-Walker, 2009)은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 양육방식의 효과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수용이 외적 가치인 권력가치의 약화를 예측하고 어머니의 수용이 친사회적인 자기초월가치 증가와 관련되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다만, Williams와 Ciarrochi(2020)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권위있는 양육은 내적 가치뿐 아니라 외적 가치까지도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머니의 수용적 양육이 권력가치를 예측

하지 못했던 본 연구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이는 권위있는 양육에 양육의 두 측면, 즉, 수용과 통제가 모두 반영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수용 차원만을 다루었던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추후 재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불공정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갈등과 분노, 공격성이 증가하는 현 상황에 주목하여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였고, 그 시작점으로 피해자 정의민감성, 가해자 정의민감성이 어떻게 발달하게 되는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수용적 양육은 차별적 효과를 가진다. 먼저 피해자 정의민감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증진시키되 다른 가족 구성원들을 수직적으로 통제하려는 가부장적 태도가 아니라 자녀를 자율적 존재로서 존중하고 따뜻하게 수용해 주는 양육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지지적이고 수평적인 관계 경험은 타인보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지배하려는 권력욕구를 저하시킴으로써 자신이 타인들에게 피해를 입는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지나친 민감성을 줄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버지 대상의 부모교육 프로그램들 중 정서표현이나 애착, 친밀감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들은 부족한 편이었기에(김성은, 2017), 애정표현에 서툰 아버지들을 위한 효과적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공격성을 줄이는 것으로 알려진 가해자 정의민감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특히 어머니의 수용적 양육이 중요하다. 상대에 대한 배려와 돌봄을 통해 내가 아니라 타인과 함께 사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자기초월적 가치의 증진이 자신이 타인에게 부당하게 해를 입히는 것에 대한 자각을 늘리게 될 것이다.

그간 대부분의 정의민감성 연구는 후속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본 연구는 이를 탈피하여 정의민감성의 발생 기제를 살펴보았다는 의의를 지닌다. 이를 위해 특히 부모의 양육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수용적 양육이 인간 행동의 근본 동기라고 할 수 있는 가치의 발달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그리고 권력에 대한 추구나 보편주의, 박애와 같은 자기초월적 가치가 어떻게 정의민감성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가치는 인간행동의 근본 동기이자 개인의 구체적 행동 목표를 조형하는 매우 중요하고 강력한 원리임에도 그동안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던 변인이었다. 발달 초기부터 부모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특정한 가치가 형성되기에 본 연구에서 부모의 수용적 양육과 피해자 또는 가해자 정의민감성의 관계에서 가치의 매개역할을 살펴보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관련된 선행연구가 드물기에 탐색적인 성격이 강한 것이 사실이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특히 공격성과 관련이 있는 피해자 정의민감성을 줄이고 친사회적 행동에 기여하는 가해자 정의민감성을 늘리기 위해 어떤 개입방법을 쓰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존재한다. 첫째, 정의민감성의 발달에 대한 선행연구가 매우 드물기에 변인 간 관계에 대한 명확한 이론적 기반이 부족하였다. 게다가 횡단연구이기에 본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 간의 인과적 관계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 따라서 추후에는 종단연구를 통해 인과성을 재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공정성 이슈에 민감한 20대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연령상 부모의 영향력이 더 클 수 있는 아동·청소년기를 대상으로는 가설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정의민

감성은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쳐 점차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Bondü et al., 2016), 추후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본 연구를 반복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부모의 양육 방식은 자녀의 성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예, 이선이 등, 2008),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수용적 양육이 정의민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와 관련하여 자녀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단점이 있다. 구조방정식의 검증에서 모수와 대상의 비율을 1:10으로 제한한 Bentler와 Yuan(1999)에 따를 때, 본 연구의 모형을 남녀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추후에는 충분한 표본 수를 확보하여 부모의 성별과 자녀의 성별 간 조합으로 보다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자료에만 의존하였기에 동일 방법 편향(common method bias)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따라서 결과 해석 시 신중할 필요가 있다.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참고문헌

- 김성은 (2017). 아버지교육 프로그램 연구동향. **열린부모교육연구**, 9(4), 75-100.
- 김지현, 박경자 (2006).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외적 요인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아동학회지**, 27(3), 149-168.

- 박소현, 정은혜, 김하연, 오주은, 정해진, 유혜선 (2020). 20대 대학생의 가정에서 겪은 불공정성이 사회에 대한 공정성 판단과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14-214.
- 박용한, 김은예, 한수연 (2019). 대학생용 가치 척도(K-PVQ-RR)의 타당화. **한국교육문제연구**, 37(3), 127-154.
<https://doi.org/10.22327/kei.2019.37.3.127>
- 박원익, 조운호 (2019). **공정하지 않다: 90년대 생들이 정말 원하는 것**. 서울: 지와인.
- 송경희, 송주현, 백지현, 이승연 (2009). 남녀 중학생의 정서적·인지적 특성, 부모의 양육행동과 또래괴롭힘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2), 1-22.
- 송지은 (2015). **부모수용과 청소년의 학교적응 간의 관계: 자기수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가람 (2019). **중학생의 적대적 귀인편향이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정의민감성의 다중가산조절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이, 이여봉, 김현주 (2008).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성별에 따른 지지적·통제적 양육행동: 5개국 비교 연구. **한국인구학**, 31(2), 45-76.
- 이지현, 김수영 (2016). 문항묶음: 원리의 이해와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2), 327-353.
<https://doi.org/10.22257/kjp.2016.06.35.2.327>
- 최소영, 이승연, 이유미 (2019). 중학생의 피해자 정의민감성, 개인적 공정세상신념과 반응적 공격성의 관계: 분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6(3), 197-224.
<https://doi.org/10.21509/kjys.2019.03.26.3.197>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https://doi.org/10.1037/0033-2909.103.3.411>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 Baumert, A., Beierlein, C., Schmitt, M., Kemper, C. J., Kovaleva, A., Liebig, S., & Rammstedt, B. (2014). Measuring four perspectives of justice sensitivity with two items each.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6(3), 380-390.
<https://doi.org/10.1080/00223891.2013.836526>
- Baumrind, D. (2005).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and adolescent autonomy.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108, 61-69.
<https://doi.org/10.1002/cd.128>
- Benish-Weisman, M., Daniel, E., Sneddon, J., & Lee, J. (2019). The relations between values and prosocial behavior among children: The moderating role of ag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41, 241-247.
<https://doi.org/10.1016/j.paid.2019.01.019>
- Bentler, P. M., & Yuan, K. H. (1999).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small

- samples: Test statistic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34(2), 181-197.
<https://doi.org/10.1207/S15327906Mb340203>
- Bögels, S. M., & Perotti, E. C. (2011). Does father know best? A formal model of the paternal influence on childhood social anxiety.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0(2), 171-181.
<https://doi.org/10.1007/s10826-010-9441-0>
- Bondü, R., & Elsner, B. (2015). Justice sensitivity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Social Development*, 24(2), 420-441.
<https://doi.org/10.1111/sode.12098>
- Bondü, R., & Inerle, S. (2020). Afraid of injustice? Justice sensitivity is linked to general anxiety and social phobia symptom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72, 198-206.
<https://doi.org/10.1016/j.jad.2020.03.167>
- Bondü, R., & Richter, P. (2016). Interrelations of justice, rejection, provocation, and moral disgust sensitivity and their links with the hostile attribution bias, trait anger, and aggression. *Frontiers in Psychology*, 7, 795.
<https://doi.org/10.3389/fpsyg.2016.00795>
- Bondü, R., Hannuschke, M., Elsner, B., & Gollwitzer, M. (2016). Inter-individual stabilization of justice sensitivity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64, 11-20.
<https://doi.org/10.1016/j.jrp.2016.06.021>
- Bondü, R., & Inerle, S. (2020). Afraid of injustice? Justice sensitivity is linked to general anxiety and social phobia symptom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72, 198-206.
<https://doi.org/10.1016/j.jad.2020.03.167>
- Bondü, R., Schwemmer, F., & Pfetsch, J. (2021). Justice sensitivity is positively and negatively related to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nflict and Violence*, 15, 1-12.
<https://doi.org/10.11576/ijcv-4463>
- Brock, D. M., Sarason, I. G., Sanghvi, H., & Gurung, R. A. (1998). The perceived acceptance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5(1), 5-21.
<https://doi.org/10.1177/0265407598151001>
- Caprara, G. V., & Steca, P. (2007). Prosocial agency: The contribution of values and self-efficacy beliefs to prosocial behavior across age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6(2), 218-239.
<https://doi.org/10.1521/jscp.2007.26.2.218>
- Carrasco, M. A., Holgado, F. P., Rodríguez, M. A., & Del Barrio, M. V. (2009). Concurrent and across-time relations between mother/father hostility and children's aggression: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Family Violence*, 24(4), 213-220.
<https://doi.org/10.1007/s10896-009-9222-y>
- Cropanzano, R., Goldman, B., & Folger, R.

- (2005). Self interest: Defining and understanding a human motive.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and Behavior*, 26(8), 985-991. <https://doi.org/10.1002/job.353>
- Day, R. D., & Padilla-Walker, L. M. (2009). Mother and father connectedness and involvement during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3(6), 900-904. <https://doi.org/10.1037/a0016438>
- DeHart, T., Pelham, B. W., & Tennen, H. (2006). What lies beneath: Parenting style and implicit self-esteem.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2(1), 1-17. <https://doi.org/10.1016/j.jesp.2004.12.005>
- Dubeau, D., Coutu, S., & Lavigueur, S. (2013). Links between different measures of mother/father involvement and child social adjustment.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83(6), 791-809. <https://doi.org/10.1080/03004430.2012.723442>
- Fetchenhauer, D., & Huang, X. (2004). Justice sensitivity and distributive decisions in experimental gam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6(5), 1015-1029. [https://doi.org/10.1016/S0191-8869\(03\)00197-1](https://doi.org/10.1016/S0191-8869(03)00197-1)
- Flouri, E., & Buchanan, A. (2002). Life satisfaction in teenage boys: The moderating role of father involvement and bullying. *Aggressive Behavior: Official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Research on Aggression*, 28(2), 126-133. <https://doi.org/10.1002/ab.90014>
- Georgiou, S. N., Ioannou, M., & Stavrinides, P. (2018). Cultural values as mediators between parenting styles and bullying behavior at school. *Social Psychology of Education*, 21(1), 27-50. <https://doi.org/10.1007/s11218-017-9413-y>
- Gollwitzer, M., & Rothmund, T. (2009). When the need to trust results in unethical behavior: The sensitivity to mean intentions (SeMI) model.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Ethical Behavior and Decision Making*, 135-152. <https://psycnet.apa.org/record/2009-12470-008>
- Gollwitzer, M., Schmitt, M., Schalke, R., Maes, J., & Baer, A. (2005). Asymmetrical effects of justice sensitivity perspectives on prosocial and antisocial behavior. *Social Justice Research*, 18(2), 183-201. <https://doi.org/10.1007/s11211-005-7368-1>
- Gomez, R., & McLaren, S. (2006). The association of avoidance coping style, and perceived mother and father support with anxiety/depression among late adolescents: Applicability of resiliency model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0(6), 1165-1176. <https://doi.org/10.1016/j.paid.2005.11.009>

- Graham, J., Nosek, B. A., Haidt, J., Iyer, R., Koleva, S., & Ditto, P. H. (2011). Mapping the moral domai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1*(2), 366-385.
<https://doi.org/10.1037/a0021847>
- Grusec, J. E., & Goodnow, J. J. (1994). Impact of parental discipline methods on the child's internalization of values: A reconceptualization of current points of view. *Developmental Psychology, 30*(1), 4-19.
<https://doi.org/10.1037/0012-1649.30.1.4>
- Hawley, P. H. (1999). The ontogenesis of social dominance: A strategy-based evolutionary perspective. *Developmental Review, 19*(1), 97-132.
<https://doi.org/10.1006/drev.1998.0470>
- Hofer, J., & Spengler, B. (2020). How negative parenting might hamper identity development: spontaneous aggressiveness and personal belief in a just world. *Self and Identity, 19*(2), 117-139.
<https://doi.org/10.1080/15298868.2018.1541026>
- Hong, P., & Cui, M. (2020). Helicopter parenting and college students' psychological maladjustment: The role of self-control and living arrangement.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9*(2), 338-347.
<https://doi.org/10.1007/s10826-019-01541-2>
- Kajonius, P. J., Persson, B. N., & Jonason, P. K. (2015). Hedonism, achievement, and power: Universal values that characterize the Dark Triad.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77*, 173-178.
<https://doi.org/10.1016/j.paid.2014.12.055>
- Khaleque, A., & Rohner, R. P. (2012). Pancultural associations between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of children and adults: A meta-analytic review of worldwide research.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3*(5), 784-800.
<https://doi.org/10.1177/0022022111406120>
-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Guilford publications.
- Knafo, A., Daniel, E., & Khoury Kassabri, M. (2008). Values as protective factors against violent behavior in Jewish and Arab high schools in Israel. *Child Development, 79*(3), 652-667.
<https://doi.org/10.1111/j.1467-8624.2008.01149.x>
- Kotchick, B. A., & Forehand, R. (2002). Putting parenting in perspective: A discussion of the contextual factors that shape parenting practice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1*(3), 255-269.
<https://doi.org/10.1023/A:1016863921662>
- Li, X., & Meier, J. (2017). Father love and mother love: Contributions of parental acceptance to children's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Family Theory &*

- Review*, 9(4), 459-490.
<https://doi.org/10.1111/jftr.12227>
- Lönnqvist, J. E., Walkowitz, G., Verkasalo, M., & Wichardt, P. C. (2011). Situational power moderates the influence of self-transcendence vs. self-enhancement values on behavior in ultimatum bargaining.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5(3), 336-339.
<https://doi.org/10.1016/j.jrp.2011.03.003>
- Maltese, S., & Baumert, A. (2019). Linking longitudinal dynamics of justice sensitivity and moral disengagemen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36, 173-177.
<https://doi.org/10.1016/j.paid.2017.06.041>
- Martínez, I., & García, J. F. (2007). Impact of parenting styles on adolescents' self-esteem and internalization of values in Spain. *The Spanish Journal of Psychology*, 10(2), 338-348.
<https://doi.org/10.1017/S1138741600006600>
- Mikula, G. (1994). Perspective-related differences in interpretations of injustice by victims and victimizers: A test with close relationships. In M. J. Lerner, & G. Mikula (Eds.), *Entitlement and the affectional bond*. New York: Plenum. pp. 175-203.
https://doi.org/10.1007/978-1-4899-0984-8_8
- Paciello, M., Muratori, P., Ruglioni, L., Milone, A., Buonanno, C., Capo, R., ... Barcaccia, B. (2016). Personal values and moral disengagement promote aggressive and rule-breaking behaviours in adolescents With disruptive behaviour disorders.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61(1), 46-63.
<https://doi.org/10.1177/0306624X15589593>
- Patrick, R. B., & Gibbs, J. C. (2016). Maternal acceptance: Its contribution to children's favorable perceptions of discipline and moral identity.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77(3), 73-84.
<https://doi.org/10.1080/00221325.2016.1173008>
- Preacher, K. J., & Hayes, A. F. (2004). SPSS and SAS procedures for estimating indirect effects in simple mediation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36(4), 717-731.
<https://doi.org/10.3758/BF03206553>
- Pulfrey, C., & Butera, F. (2016). When and why people don't accept cheating: self-transcendence values, social responsibility, mastery goals and attitudes towards cheating. *Motivation and Emotion*, 40(3), 438-454.
<https://doi.org/10.1007/s11031-015-9530-x>
- Quan, S., Li, M., Yang, X., Song, H., & Wang, Z. (2022). Perceived parental emotional warmth and prosocial behaviors among emerging adults:

- Personal belief in a just world and gratitude as mediator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31(4), 1019-1029.
<https://doi.org/10.1007/s10826-021-02173-1>
- Reich, T. C., & Hershcovis, M. S. (2015). Observing workplace incivilit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100(1), 203-215.
<https://doi.org/10.1037/a0036464>
- Ringeisen, T., & Raufelder, D. (2015). The interplay of parental support, parental pressure and test anxiety-gender differences in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45, 67-79.
<https://doi.org/10.1016/j.adolescence.2015.08.018>
- Rohner, R. P., Khaleque, A., & Cournoyer, D. E. (2005). Parental acceptance rejection: Theory, methods, cross cultural evidence, and implications. *Ethos*, 33(3), 299-334.
<https://doi.org/10.1525/eth.2005.33.3.299>
- Schmitt, M. J., Neumann, R., & Montada, L. (1995). Dispositional sensitivity to befallen injustice. *Social Justice Research*, 8(4), 385-407.
[https://doi.org/10.1016/0191-8869\(96\)00028-1](https://doi.org/10.1016/0191-8869(96)00028-1)
- Schmitt, M., Gollwitzer, M., Maes, J., & Arbach, D. (2005). Justice sensitivity.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21(3), 202-211.
<https://doi.org/10.1027/1015-5759.21.3.202>
- Schwartz, S. H. (1992). Universals in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Theoretical advances and empirical tests in 20 countries. In M. P. Zanna (Ed.), Vol. 25.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pp. 1-65). New York, NY: Academic Press
[https://doi.org/10.1016/S0065-2601\(08\)60281-6](https://doi.org/10.1016/S0065-2601(08)60281-6)
- Schwartz, S. H. (2007). Value orientations: Measurement,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across nations. In R. Jowell, C. Roberts, R. Fitzgerald, & G. Eva (Eds.), *Measuring attitudes cross-nationally: Lessons from the European Social Survey* (pp. 169-203). London: Sage.
<https://doi.org/10.4135/9781849209458.n9>
- Schwartz, S. H. (2017). The refined theory of basic values. In S. Roccas & L. Sagiv (Eds.), *Values and behavior* (pp. 51-72). Switzerland: Springer.
https://doi.org/10.1007/978-3-319-56352-7_3
- Seddig, D., & Davidov, E. (2018). Values, attitudes toward interpersonal violence, and interpersonal violent behavior. *Frontiers in Psychology*, 9, 604.
<https://doi.org/10.3389/fpsyg.2018.00604>
- Silfver, M., Helkama, K., Lönnqvist, J. E., & Verkasalo, M. (2008). The relation between value priorities and proneness to guilt, shame, and empathy. *Motivation and Emotion*, 32(2), 69-80.
<https://doi.org/10.1007/s11031-008-9084-2>

- Soenens, B., Duriez, B., Vansteenkiste, M., & Goossens, L. (2007).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empathy-related responding in adolescence: The role of maternal suppor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3*(3), 299-311.
<https://doi.org/10.1007/s11031-008-9084-2>
- Umemura, T., & Šerek, J. (2016). Different developmental pathways from parental warmth to adolescents' trust in peers and politicians: Mediating roles of adolescent-parent attachment and belief in a just world. *Social Justice Research, 29*(2), 186-205.
<https://doi.org/10.1007/s11211-016-0258-x>
- Stormshak, E. A., Bierman, K. L., McMahon, R. J., & Lengua, L. J. (2000). Parenting practices and child disruptive behavior problems in early elementary school.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9*(1), 17-29.
https://doi.org/10.1207/S15374424jccp2901_3
- Vaillancourt, T., & Hymel, S. (2006). Aggression and social status: The moderating roles of sex and peer-valued characteristics. *Aggressive Behavior, 32*(4), 396-408.
<https://doi.org/10.1002/ab.20138>
- Wang, Y., Luo, Y. L., Wu, M. S., & Zhou, Y. (2022). Heritability of justice sensitivity. *Journal of Individual Differences.*
<https://doi.org/10.1027/1614-0001/a000366>
- Williams, K. E., & Ciarrochi, J. (2020). Perceived parenting styles and values development: a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s and emerging adult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30*(2), 541-558.
<https://doi.org/10.1111/jora.12542>
- Yaros, A., Lochman, J. E., & Wells, K. (2016). Parental aggression as a predictor of boys' hostile attribution across the transition to middle school.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40*(5), 452-458.
<https://doi.org/10.1177/0165025415607085>

Relations between parental acceptance and victim or perpetrator–justice sensitivity of university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power and self-transcendence values

Soyeong Choi¹

Eunjae Lee²

Seung-yeon Lee³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Lecturer¹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Master's Student²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³

This study attended to current situations that unfairness becomes the significant social issue. In order to address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justice sensitivity which refers to the degree of sensitive responses to unfairness, this study examined the predictors of victim justice sensitivity and perpetrator justice sensitivity of university students. Specifically, we examined whether parental acceptance predicts victim and perpetrator justice sensitivity respectively and whether the power and self-transcendence values mediate these relationships. The self-report data of 401 university students were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s indicated that fathers' acceptance negatively predicted power and self-transcendence values. Paternal acceptance predicted the lower level of power value, positively predicting victim justice sensitivity. The partial mediation effect of the power value was significant. Conversely,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acceptance and perpetrator justice sensitivity was fully mediated by the value of self-transcendence. Therefore, we discussed the role of parenting and values in developing victim and perpetrator justice sensitivity and the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 Some of the strengths of this study is that it highlighted the differential roles of paternal and maternal acceptance in the development of justice sensitivity, as well as the importance of values established through the interaction with parents.

Keywords : parental acceptance, victim justice sensitivity, perpetrator justice sensitivity, power value, self-transcendence value